

# 목포시 1개동 1 작은 도서관 시대 열린다

### 기존 17개소 운영 이어 올해 6개동에 신규 조성 연간 운영비 8억여원 지원

올해가 '목포시 1개동 1 작은 도서관 시대'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사업비 5억8500만원을 들여 연산동과 대성동, 이로동, 하당동, 삼향동, 옥암동 등 6개소에 작은 도서관이 조성한다.

현재 목포시에는 23개동 가운데 16개에 17개소(부흥동 2개소)의 작은 도서관이 조성돼 연간 8억40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특히 올 연말까지 미실치된 6개동에 작은 도서관 신규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1개동 1 작은 도서관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시가 밝힌 17개소 이용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 15만명의 어린이들이 작은

도서관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려 이용객이 1만명이 넘는 곳도 6개소에 달했다.

이처럼 이용객이 많은 것은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이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대체 놀이터로 인기가 많다는 게 작은 도서관 간사들의 분석이다.

아울러 작은 도서관에서는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라이스클리어(떡 아트), 창의 로봇 만들기 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도 어린이들을 유인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밖에 목포시는 도서 상호 연계 서비스와 순회 사서 지원, 문화프로그램 상시 운영을 비롯해 도서관 운영자 대상 분기별 활성화 방안 회의 개최하고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 평생교육도시 위상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목포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17개소에 이르는 작은 도서관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두 달에 한번 쯤 도서관을 찾아가 개선 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체크하고 있다"며



목포시가 올 연말까지 사업비 5억8500만원을 들여 연산동과 대성동, 이로동, 하당동, 삼향동, 옥암동 등 6개소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한다. 북향동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된 문학 프로그램. <목포시 제공>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요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학습 공간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은 도서관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오후 7시까지 개방된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 '희귀철새 습터' 목포 남향 생태계 파괴 심각

### 준설 등 공사로 서식공간 사라져 생태 숲 조성 등 보존 대책 시급

천연기념물이나 멸종 위기종 등 희귀 철새들의 집단 서식지이자 중간 기착지인 목포 남향에 생태 숲 조성 등 보존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목포 남향은 도심에서 희귀 철새들을 사시찰 탐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철새 학교'로 가치가 높지만 최근 준설 등 기반공사 진행되면서 철새들의 서식공간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정부 및 관계기관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남향 앞바다는 면적은 좁지만 갯벌이 발달돼 계절별로 많은 새들이 이곳을 찾는다. 겨울에는 오리와 갈매기 종들이 봄·가을에는 멀리 호주에서 시베리아까지 가는 도요새들이 중간 쉼터다. 여름에는 백로, 왜가리들이 먹이활동을 하는 곳이다.

특히 도요새의 경우 총 65종 가운데 40종이 목포 남향에서 관찰될 정도로 중간 서식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고 1년에 140여 종의 철새들이 찾아오는 철새의 보고다.

지난달에는 목포 남향 앞바다에서 천연기념물 제326호이자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검은머리 물떼

새가 카메라에 포착됐다.

'갯벌의 신사'라는 별명을 지닌 이 새는 주로 서해안 일대에서 겨울을 보낸 뒤 번식을 위해 중국 동북부 등으로 흩어졌다가 겨울철이 되면 다시 서해안 일대로 모여들지만 떠나지 않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쌍이 이곳에서 번식이 성공해 이달 초 부화한 새끼 2마리를 키우고 있다.

또 매년 봄과 가을철 이동시기에 며칠간만 볼 수 있었던 희귀 철새 '장다리 물떼새' 두 쌍이 남향앞바다에 동지를 튼 모습도 포착됐다.

15년 넘게 남향의 철새들을 관찰해온 목포자연사박물관 김석이 학예연구사는 "희귀 철새가 도심에 동지를 튼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주변이 갈대밭으로 조성돼 안전한 장소로 여겨져 동지를 튼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장다리 물떼새는 매년 10여 개체가 찾아오지만 며칠씩 머물렀다 가는 정도였고 올해는 두 쌍이 동지를 틀어 번식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희귀 철새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역의 환경전문가들은 "당초 남향에 국립 호남관생물자원관이 들어설 예정으로 개발이 계속됐지만 생물 자원관이 고하도에 건립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난개발은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지난 22일 어업인과 중도매인들이 간담회를 갖고 생선 상자 규격 변동을 최종 합의했다. <목포수협 제공>

## 어업인-중도매인 생선 상자 규격 갈등 해소

### 목포수협 중재로 최종 합의

어업인과 중도매인들 사이에 생선 상자 규격 변동을 놓고 발생한 갈등을 목포수협이 중재해 원만하게 해결하고 규격동 최종 합의했다.

24일 목포수협 등에 따르면 지난 몇 주간 어업인과 중도매인이 생선상자 규격 변경으로 갈등의 골이 깊었다. 어업인은 중량과 신선도 유지를 위해 7cm 규격을 주장했고 중도매인은 즉석 전국적 유통과 타 위판장과의 통일성을 위해 9cm규격을 주장했다.

양측의 팽팽한 의견 대립은 계속돼 해결

점을 찾지 못했는데 지난 22일 목포수협의 중재로 협상을 거쳐 서로 1cm를 양보해 8cm로 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는 중재에 나선 목포수협 김정룡 조합장이 위판장의 주체인 어업인과 중도매인 양측에게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설득해 절충안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목포수협은 "이번 합의를 통해 위판장 내의 경매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선도유지 및 포장규격화 그리고 수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 목포시의회 원 구성 내정설 등 '잡음'

### 과반 확보 민주당 의장 후보 경선서 김휴환 의원 선출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목포시의회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의회 구성과 운영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목포시의회는 24일 다음달 9일 제 340회 임시회를 열어 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포시의회 의장단은 의장·부의장 각 1명, 상임위원장 4명으로 구성된다.

통상적으로 임시회를 열어 본회의장에서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각 당의 의석수에 따라 사전에 당 차원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로 인해 11대 의회 원 구성을 둘러싼 내부 먹기식 물밑 행보가 치열해지는 등 일부 특정 구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목포시의회 구성은 민주당 14명, 평화당 6명, 정의당과 무소속 각각 1명으로 재편됐다.

정원 22명 중 민주당이 과반수인 12명을 초과함에 따라 민주당의 판단 여하에 따라 싸움이 할 수도 있는 구조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현역인 최홍림(여·3선), 김휴환(2선) 의원과 9대 의원을

지냈던 박창수(4선) 당선인을 제외한 11명이 모두 초선이다.

절대적으로 민주당 의원이 많은데다 재선 이상 의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 전반기는 물론 하반기 의장과 부의장 내정 설까지 공공연하게 나도는 등 잡음이 일었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민주당 목포지역 위원회에서 열린 당내 의정경선에서 박창수, 최홍림, 김휴환 의원 등 3명이 경합을 벌여 6표를 얻은 김휴환 의원이 각각 4표를 얻은 박창수, 최홍림 의원을 누르고 의장 후보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당초 관심이 쏠렸던 목포시의회 사상 첫 여성 의장(최홍림 의원) 탄생은 무산됐다.

민주당 관계자 등 지역정가에서는 의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부의장과 관광경제·기획복지 위원장을 타 당에 배정하는 게 무난할 것이라는 설이 나온다.

이 경우 평화당 소속 정영수(3선), 김귀선(2선), 이재용(2선) 의원 중 한명이 부의장이 되고 나머지 2명은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 목포대 역량 진단평가서 예비 자율개선대학 선정

목포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시행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인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체하는 평가로, 대학교육 정상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감축을 위해서 추진한 평가다.

특히 진단결과에 따라 전체 대학을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3개 유형으로 최종 구분에 일정 수준의 교육역량을 갖춘 상위 60% 내의 자율개선대학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

또 그 이하위 40% 내의 대학은 2단계 평가를 거쳐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에 향후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결정될 경우 정부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이 제한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20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진단 가결과로 목포대 등 120개 일반대를 예비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해 발표했으며 이의신



목포대 학생들이 본관 학교 상징물 앞에서 홍보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목포대 제공>

청과 부장·비리 제재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8월 말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 자율개선대학 미선정 대학은 7월과 8월 중 2단계 평가를 거쳐 예정이며, 8월 말 1·2단계 평가 결과를 반영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한석 목포대 기획처장은 "이번 예비선정으로 2019년부터 입학정원 감축대상 제외 및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 등에서 매년 40~50억의 사업비를 교부받을 예정인 만큼 대학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 방수

##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삼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